계 열 문 항 2

<가>

청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내 인생에 대해 제일 궁금해 한 사람들은 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도 포함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건 꼭 랜덤박스를 여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늘이 또 내게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내 주실까? 내가 항상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선 절대 물어보지 않거나 물어보기 고약한 수많은 질문을 어떻게 엘리베이터라는 이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도 입 밖으로 낼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답변하듯)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쳤어요, 며칠 지나면 나아요. (관객을 향해) 전 그냥 웃고 이렇게 말해요."
"씩씩하긴요, 뭘요."
"일해요, 직업 있어요."
"대단하긴요, 뭘요."
"결혼했죠, 결혼했어요."
"네,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는 님은 왜 엄마랑 같이 안 다니세요?"

제일 짜증 나는 건, 남들이 묻지도 않고 내 휠체어를 밀어주는 거예요. 난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 유별난 전동 헤드는 시속이 25킬로라고요. 당신 체력이 제일 좋았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도 절대 못 따라잡는 속도라고요. 난 정말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전 이런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자신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요구가 반드시 있을 거야, 당신의 신체와 생활의 어떤 부분은 분명히 수수께끼일 거야……. 자주 겪는 상황이지만 난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왜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약해 보여야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느끼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해 보여야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느끼는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 천쓰안(陳思安)의 <제일 가까운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죠?>(2023) 중에서

<나>

지배적인 기대를 벗어난 신체가 그 의미가 해석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 반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신체는 항상 보상받는다. 다르다고 간주되는 몸을 둘러싼 '일탈의 내러티브'는, 보통인 것 또는 최상의 것이란 개념에 부합하는 몸을 둘러싼 '보편성의 내러티브'와 병행한다. 이 문화적 이분법에 따라 이 몸은 열등하고 저 몸은 우수하다, 이 몸은 아름답거나 완벽하고 저 몸은 기괴하거나 추하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이 같은 시각적 다름의 경제학 속에서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unmarked)' 몸은 '정상'이라는 중립적 공간 속에 있게 되지만, 이에서 벗어나는 몸은 타자화된 채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생물학적 차이를 넘어서 과잉된 의미가 부여되는 병신, 혼혈, 이방인 같은 형상들은 사회적 낙인이 찍힌 타자화된 존재로 재현되며 사회적 권력과 지위로부터 배제당한다는 점에서 '다름을 분류하는 이념'의 산물이다.

'정상인(normate)'이라는 신조어는 문화적 자아의 가려진 주체 위치를 의미한다. 눈에 띄는 '표식이 있는(marked)' 타자들의 몸이 만들어 낸 '정상'의 경계를 통해서만 '정상인'의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표식이 없는 이들은 이렇게 형성된 '정상인'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거의 완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데 이용한다. 결국 '정상인'이란 그 같은 위치가 부여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갖는 구성된 정체

성인 것이다.

그런데 '정상인' 범주에 속한 이들의 위치는 우리가 신체적, 문화적 타자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과 담론을 자세히 살펴볼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권력관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신체의 표식은 항상 타자성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인'의 형상은 '정상'에서 벗어난 신체의 가시화된 타자성을 통해 은폐되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중립화된다.

<다>

사람들은 대체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차별론도 결국은 차별은 옳지 않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성립한다. 사람들은 적어도 평등이라는 원칙을 도덕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에게 차별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에 가담한다는 건 도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는 간절한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다. 영화 <부당거래>(2010)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일상에서 이 말은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나는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호의와 권리에 대한 이 이른바 '명언'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무언가 베풀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사람은 호의로서 일을 하고 싶다. 자신이 우위에 있는 권력관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호의성(시혜성) 자선사업이나 정책은 그저 선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통제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일종의 권력행위이다. 만일 당신이 권리로서 무언가 요구한다면 선을 넘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권력까지 포함한다.

사람들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있다. 사회 안에서 나의 위치에 따라 특권을 가지기도 한다. 돈이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권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통 특권이란 말이 일부 재벌이나 고위층의 권력으로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특권을 일부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특권이란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을 말한다.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발견'인 이유가 있다. 일상적으로 누리는 이런 특권은 대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서 많은 경우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권은 말하자면 '가진 자의 여유'로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이다.

2-1. <가>의 주인공이 처한 문제상황을 <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300±30자)

2-2. <나>와 <다>의 '권력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각각 설명하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논하시오. (600±60자)